

재단-이사회-총감독 3대 축 인적 쇄신

■ 광주비엔날레 이사회 새판짜기 분주



광주비엔날레가 이달 말 총감독 선출과 재단 이사장 거취 문제를 결정하는 이사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변화를 통해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이고 있다. 사진은 비엔날레 재단 이사회 장면.

전문성 강화·위상 재정립 목소리 높아

2008년 총감독 첫 외국인 선임 관심 증폭

을 받고 있어 현재 숙고 중이다"며 "조만간 이 사장 연임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나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사회=오는 22일 당연직 이사 8명과 임 기가 만료되지 않은 2명을 제외한 15명의 선 출직 이사의 임기가 끝나지만 현재까지 이사

진 교체 등 '인적쇄신'은 거론되지 않고 있다. 이달 말께 열릴 예정인 이사회에서 이사장의 거취 문제는 확정되고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할 경우 일부 이사진의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비엔날레 이사회의 전문

성을 강화하는 등 '씽크탱크'로서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여론의 골자는 이사회가 비엔날레의 전반적인 업무를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선 당연직 이사들의 수차를 대폭 줄이는 대신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참여시키고, 선출직 이사도 미술과 무관한 인사들을 배제하고 예술 전문가들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사회가 맡고 있는 비엔날레·디자인 비엔날레 총감독 선임, 양대 비엔날레 행사 추진 등 현안 업무가 예술에 대한 전문적인 시각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총감독= 지난달 23일 예술 총감독 후보 접수를 마감한 결과 외국인 감독 후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사상 최초로 외국인 감독이 탄생할 가능성이 모아지고 있다.

비엔날레가 제2의 도약을 위해서는 외국인 감독을 선임해야 한다는 긍정론도 있지만 외국인 감독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갖추지 않을 경우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는 조심스런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외국인 감독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국내 보조감독제를 도입하는 등 외국인 감독에 연락 륙을 위한 안전망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예술 총감독 선정소위원회는 오는 13 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총감독 후보를 3배 수로 압축한다. 이후 이사회는 추천 3배수 후보들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이달 말께 최종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특정 극단 사례 확대해석 말라"

광주연극협회 '예술지원금' 성명

연극 대표단체 자기반성은 없어

타당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성명서에는 협회 회원과 회원 극단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음에도 광주 연극을 대표하는 단체의 자기 반성이 전혀 없어 눈屎을 쳐푸리게 했으며 간담회 중에도 '연극협회 분열 세력' 운운하며 최근의 사태를 지나치게 외부책임으로 돌리는 인상을 줬 눈총을 쌌다.

박 회장은 "협회 차원에서 일부 문제에 대해 자정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며 "신임집행부가 들어선 만큼 연극계를 예정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의 의혼 기린다

(義魂)

창극 '의병장 고경명' 제작진·후손들 한자리



'의향(義鄉)' 광주의 기개를 담은 창극 '의병장 고경명(부제 무등산기)' 제작진과 작품의 뿌리가 된 호남 의병, 사립의 후손들이 함께 만나 뜻깊은 시간을 마련한다.

창극을 제작중인 광주시립극 극단과 (사)남도문화진흥회는 6 일 오전 11시 광주 힐링크 호텔에서 '호남의 정신! 400년 만에 다시 만난다'를 주제로 행사를 갖는다.

이날 행사에는 작품의 주인공인 제봉 고경명 장군을 비롯해 하시 김인후, 고봉 기대승, 소채 응양산보, 송강 정철, 건재 김천일, 총장공 김덕령 장군 등 호남 의병과 사립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함께 만나 뜻깊은 시간을 마련한다.

주인공 고경명 역에는 총감독을 맡고 있는 송순섭씨와 장영한씨가 더블 캐스팅됐으며 부인역으로는 이은하·최혜정, 대야역으로는 장호준, 김천일 역으로는 김원영 등이 출연한다. 대본은 희곡 작가 김영학씨가 집필했으며 연출은 김영만씨, 창작은 정철호씨가 맡았다.

한편 '의병장 고경명'은 오는 6 월 북한에서 열리는 6·15 공동선언 기념 광주문화제에서 공연될 예정으로, 5월 민중항쟁, 광주 학생운동, 동학혁명 등 무등산의 정기를 이어받은 의혼(義魂)

'발굴 비리' 고고학계 최대 위기

국립대교수 연구비 유용사건 이어 남도 문화재연구원장 구속

지역 문화재 발굴기관의 도덕 불감증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남도문화재연구원장 등 일부가 비리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것은 학문의 영역에 공권력의 개입을 불렀다는 점에서 자질능력을 상실한 고고학계의 주소를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광주지법 순천지청은 지난 2일 발굴 용역비 수여원을 편취·횡령한 순천 남도문화재연구원 최모(45) 원장과 조모(40) 실장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제자들의 임금과 숙박비 등을 과다 산정하는 방법으로 9억여원을 편취하고 출장비 등을 허위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방 대학의 한 교수도 연구비를 조각나 연구원들 명의의 통장으로 분산해 수천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 사건의 파장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소문으로만 떠돌던 지역 문화재 발굴기관의 공공연한 탈법, 불법행위가 사실로 밝혀졌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그동안 고고학계가 연구비를 횡령·유용하는 등 사설상 불·탈법을 자행하면서도 '관행'으로 간주, 비리를 키워온 게 사실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발굴기관이 기업을 방불케 할 정도로 당시가 커졌음에도 기관의 윤리의식은 시대의 흐름을 헤치 못했다는 자상의 목소리가 의미 있게 들린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신정문 비올라 독주회

9일 광주문화예회관 소극장



비올리는 바이올린에 비해 덜 대중적인 악기지만 비올리스트의 그윽한 음색을 좋아하는 음악팬들도 많다.

광주에서는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비올라의 독특한 음색을 감상할 수 있는 독주회가 열린다. 신정문(광주시립교향악단 수석단원·사진)씨가 9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회관 소극장에서 독주회를 마련한 것.

연주 레퍼토리는 슈만의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알레그로와 아다지오 작품 70', 다리우스 미요의 '4개의 초상', 브루흐의 '비올라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보마스 작품 85' 등이다.

전남대 음악교과와 졸업 후 예술 활동을 했던 신정문은 1990년 대구 국립교향악단에서 청년연주자로 데뷔해 2000년 국립교향악단에서 청년연주자로 활동한 바 있다.

연주 레퍼토리는 슈만의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알레그로와 아다지오 작품 70', 다리우스 미요의 '4개의 초상', 브루흐의 '비올라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보마스 작품 85' 등이다.

전주문화예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될 예정인 '의병장 고경명'은 10월 25~26일 이틀간 광주문화예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될 예정이다.

오는 4월 25~26일 이틀간 광주문화예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될 예정인 '의병장 고경명'은 10월 25~26일 이틀간 광주문화예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될 예정이다.

한편 6월 12일에는 광주문화예회관 대극장에서 '의병장 고경명'이 개최된다.

한편 6월 12일에는 광